

‘더글로리’ 아쉬움 달랜 이도현 “행복한 작업해 100점 줄래요”

종영 드라마 ‘나쁜엄마’ “새로운 도전에...인생 배워”
일곱살 지능이 된 검사 연기로 인상적인 연기 선보여

배우 이도현(28)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2022~2023) 공개 후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다.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흥행했지만, ‘주여정’(이도현) 캐릭터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했고 ‘문동은’(송혜교)과 케미스트리도 잘 살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자극제로 작용했을까. 최근 막을 내린 JTBC ‘나쁜엄마’에선 사고로 일곱살 지능이 된 검사 ‘최강호’(이도현)로 분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새로운 도전이었다”면서 “스스로에게 야박한데, 이번엔 100점을 주고 싶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더 글로리가 잘 돼서 좋지만, 남들이 잘 안 갔다. 공개 전 김은숙 작가와 안길호 PD님이 ‘여정이 정말 잘됐다. (연기) 미쳤다고 하더라. 기대하고 봤는데, 캐릭터 보다 내 연기가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했다. 왜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파트2 공개 전 다른 감독님과 라미란 선배한테 물어봤다. ‘그렇게 연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차라리 욕하고 화내고 우는 연기는 쉬운데, 물컵의 물이 넘칠 것 같으면서도 넘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연기는 정말 어렵다’고 해줬다. 혼자 좀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깨져서 터닝포인트가 됐다.”

나쁜엄마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진영순’(라미란)과 뜻밖의 사고로 아이가 된 아들 강호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1회 3.6%(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4회 12%로 종방했다. “극본이 재미있었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았다. 근데 오기가 생겼다. 괜한 자존심일 수 있지만, ‘나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아쉬운 게 많지만,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다. 예전 같으면 60~70점 이라고 했을 텐데, 이 작품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스스로 다독일 줄 알고 정전해주라’고 배워서 (만족도는) 100점”이라며 “행복한 작업이었

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결과가 안 좋아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연기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열렸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도현은 캐릭터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서른아홉살 강호가 일곱살 지능이 됐지만, ‘왜 다른 사람 같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물론 “톤을 조절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인물인데 기억을 잃고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고 급격히 달라져도 이상하지 않느냐. 30대 말투로만 해도 공감이 안 될 것 같았다”고 짚었다. “극 중 엄마가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곡 물에 던지는 신이 있지 않았느냐. 너무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그 환경에 놓인 부모님이었던 것 같다. 내 자식이 걸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엄마다.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저 정도는 아무 짓도 아니더라”는 댓글을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회에서 영순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강호가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신도 색달랐다. “극본을 봤을 때 솔직히 그런 장례식은 없다고 생각했다. 다같이 축제 분위기인 것처럼 엄마를 보내주는 게 신박했다”며 “이상하게 마음과 행동이 반대되는 데서 오는 짜릿함과 새로움이 있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슬픈 걸 표현하지 않아도 애뜻하고 엄마가 생각났다”고 돌아봤다.

“실제로 어머니도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우셨더라. 다른 작품할 때는 집에 가면 ‘도현이 왔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호야라고 하더라. 강호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계속 물어보고 좋아해줬다. 시청률 올려야 한다고 재방송을 계속 틀어 놓더라. 그 정도로 좋아해줬다. 어머니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 ‘무조건 공부해라’는 주의였다.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난 공부가 하기 싫었다. 강압 아닌 강압을 받으며 살았지만,

성인이 된 후 강호와 연순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지금은 딸처럼 애교도 부리고 살가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도현은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데뷔했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호텔 델루나’(2019)를 비롯해 ‘18어게인’·‘스위트홈’(2020) ‘멜랑콜리아’(2021) 등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김하늘(45), 임수정(44), 송혜교(42) 등 연상녀들과 호흡을 많이 맞췄는데 “나이차가 많은 선배들이지만, 촬영할 때 나 이 생각 자체를 안했다. 그저 ‘송혜교 선배님이 민동은이네’ ‘임수정 선배님이 지윤수네’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나이차가 많이 안 나 보인다고 하더라. 내가 노안이기도 하다”고 웃었다.

더글로리에서 호흡한 임지연(33)과는 연인이 됐다. “그 친구가 촬영이 많아서 ‘방송을 봐달라’거나 ‘피드백 해달라’고 하기 미안했다”면서도 “방송 할 때마다 기사가 뜨니 ‘축하한다’고 해줬다”고 귀띔했다. “뽀뽀신이 많아서 눈치 보이지 않았나? 전혀 아니다. 어쨌든 연기로서 하고 작품과 역할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애정신이) 들어간 거라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며 “촬영 중 (열애설이) 갑자기 빵 터져 죄송했다. 작품에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더글로리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쓰였다”고 했다.

이도현은 하반기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나쁜엄마는 군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다. 욕심을 내 한 작품 더 할 수 있지만, “언제 군대에 갈지 몰라서 내 신을 다 담겨서 찍어야 하더라. 나 때문에 촬영 환경이 바뀌면 피해 끼치는 것 같아서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소년 이미지가 있다면, 군대 다녀와서는 좀 더 남성미가 푹푹 났으면 좋겠다. 공연도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뮤지컬의 꿈이 있다”고 했다.

“예전부터 회사 대표님, 본부장 형한테 항상 얘기했다. ‘정상’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산에 비유했다. 어쨌든 우리는 등산하고 있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경치도 보



고, 거기 있으면 얼어 죽으니 하산해서 다른 산을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산을 잘 하라고 했다. 보통 하산할 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힘이 다 풀려서 많이 다치니까, 하산을 잘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하는 것 같다. 난 타고난 천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 빼고는 시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세는 돼 있다.”

방탄소년단 ‘테이크 투’·‘빌보드 글로벌 200’ 1위...7곡째 정상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선 48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매한 싱글 ‘테이크 투’(Take Two)가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다.

20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9일 발매한 ‘테이크 투’는 24일 자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테이크 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6020만번 스트리밍이 되고 음원 6만 4000개가 팔렸다.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하고는 5430만번 스트리밍됐으며 음원은 4만 8000개가 팔렸다.

2020년 9월부터 차트 순위를 매긴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은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음원 위주로 노래를 듣는 젊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인기 차트인 셈이다. 팝의 강국인 미국을 포함한 ‘빌보드 글로벌 200’

순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방탄소년단은 ‘테이크 투’ 포함 ‘글로벌 200’에 모두 일곱 곡을 정상에 올렸다.

‘글로벌 200’에선 브릿팝 슈퍼 밴드 ‘몰드플레이’와 함께 한 ‘마이 유니버스’, ‘퍼미션 투 덴스’, ‘버터’, ‘라이프 고즈 온’,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미국 가수 제이슨 데로로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20년 해당 차트가 시작된 이래 매년 신곡으로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가수가 됐다.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역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으나 이 곡은 이미 발표된 기존 곡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트리밍 횟수가 크게 늘며 역주행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도 역시 ‘테이크 투’ 포함 일곱 곡을 정상에 올렸다. ‘렛 투 컴’, ‘마이 유니버스’, ‘퍼미션 투



‘테이크 투’, ‘라이프 고즈 온’,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에서도 역시 매년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가수가.

이와 함께 ‘테이크 투’는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48위를 차지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이미 해당 차트에 ‘다이너마이트’ 등 6곡을 정상에 올렸었다. 또 ‘테이크 투’는 발매 전에 빌보드 핫 트렌드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방탄소년단의 저력을 입증했다. ‘테이크 투’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10년간 팬과 함께 걸어온 날들을 되새기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을 그리며 미래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전하는 곡이다.

뉴진스 ‘제로’, 또 1위 할까...美 래퍼 제이아이디 협업 리믹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미국 유명 래퍼 제이아이디(J.I.D)가 함께 한 ‘제로(Zero)’ 리믹스 버전이 21일 전 세계 공개됐다.

‘제로’는 뉴진스가 지난 4월 코카-콜라의 글로벌 뮤직 플랫폼 코-크 스튜디오와 협업한 CM송이다.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로 알려진 일명 ‘코카-콜라 송’을 트렌디한 비트로 재해석했다. 발매 당시 광고음악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음원 차트 1위까지 올랐다.

이날 공개된 ‘제로’ 리믹스 버전은 뉴진스와 제이아이디가 만나 오리지널 곡과는 다른 느낌으로 완성됐다.

앞서 뉴진스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타이

틀곡 ‘비 후 유 아(Be Who You Are)’(Real Magic)에 한국 아티스트 대표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곡에는 뉴진스, 제이아이디를 비롯해 ‘그래미 5관왕’ 싱어송라이터 존 바티스트(Jon Batiste), 라틴 팝 아티스트 카밀로(Camillo), 영국 싱어송라이터 캣 번스(Cat Burns)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5명의 글로벌 아티스트가 함께 했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7월21일 미니 2집 ‘겟업(Get Up)’을 발매한다. 트리플 타이틀곡 ‘슈퍼 사이’, ‘ETA’, ‘쿨 위드 유(Cool With You)’를 비롯해 ‘뉴진스(NewJeans)’, ‘겟업(Get Up)’, ‘ASAP’ 등 6곡이 수록된다.

아이유 측, ‘응답 없다’는 獨 밴드 주장 반박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가 자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반박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소셜 미디어에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2013년 넥타 측으로부터 온 메일에 당시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그해 12월4일 답신한 메일 내용 사진도 게시했다.

이담은 “최근 (넥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지문과 관련 노든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일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회신했다”면서 “2013년 당시 로엔 변호사를 통해 회신한 메일 일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엔의 법무법인이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넥타 측은 지난 2013년 이민수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든 아이유의 ‘분홍신’이 자신들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제작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는 지난 달 소셜 미디어에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인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



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이상 하지않아 종료된 건이다. 당시 보냈던 메일과 공문 자료가 예전 회사와 법무법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아이유의 곡에 대한 국내 표절 고발 건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민수 작곡가도 ‘분홍신’과 ‘히어스 어스’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당시 다른 유명 작곡가들도 대중음악계엔 장르 문법과 클리셰가 있다면서 ‘분홍신’이 ‘히어스 어스’를 표절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 작곡가를 거듭했다.

아울러 이담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